

지역아동센터 힘겨운 겨울나기

‘불황 장기화’ 빈곤층 대거 몰리는데 운영 경비 크게 부족

광주 48곳 1,400여명… 지원 확대 절실

장기 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산뜻한 움츠러들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빈곤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가 정원 초과 상태로 운영되거나 수십명씩 대기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나 센터측은 운영경비 부족으로 수용인원이나 지원인력을 늘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해 정부 지원 확대가 절실했다.

14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신원지역아동센터. 점심시간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한 어린이는 “내가 여기 왜 오는 줄 알아요? 밥, 밥을 주잖아요!”라고 전진하게 웃는다.

이 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어린이는 모두 56명.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및 한부모 자녀 12명, 맞벌이 가정 자녀 44명 등이다. 학년별로는 취학 전 아동 3명, 초등학생 38명, 중·고생 15명이다.

이곳에 오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보호와 양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거나 학원에 갈 형편도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어린이들은 방학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에 머물며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영어·수학·미술 등을 배운다. 정식 수업이라기 보다는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함께 풀어나가는 형식이다. 교육대상은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다양한데 교사는 아르바이트로 포함해 5명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센터에 들어오려는 어린이들은 줄을 서고 있다. 현재 등록 대기중인 어린이들은 이날 센터를 다녀간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

이들이 발길을 되돌린 이유는 무료로 운영되는 센터의 특성상 정부 지원금과 후원에 의존, 경비 부족으로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무료 급식과 학습지도 등을 해주는 일종의 ‘빈곤층 아동 공부방’이다. 한편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범죄나 탈선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광주지부(지부장·법용석 신원지역아동센터

장·44)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48개 지역아동센터에서 1천400여명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법 지부장은 “지역 내 48개 센터도 경비 부족으로 더 이상 인원을 늘릴 수 없는 혼연”이라고 말했다.

신원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45명이지만,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다. 정원을 늘리려면 조리사 등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원을 늘린다고 하여 지원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어서 ‘어쩔 수 없는 정원 초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센터측이 매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230만원. 여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

회 광주지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월 73만원(연간 880여만원), 광주시와 북구에서 지원되는 하루 한끼 급식비가 1인당 3천원 등이다.

그나마 방학이 끝나면 급식비 지원은 중단된다. 다른 시·도와 달리 광주 지역의 경우 학기중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센터는 이 돈으로 교사 3명의 인건비 140만원(1명 무보수봉사), 영어·수학 등 아르바이트 교사 2명 인건비 30만원, 56명의 식품비 60만원(주 5일, 하루 3만원), 연료비 16만원, 전기·전화요금 30여만원 등 총 320여만원을 힘겹게 베우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4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신원지역아동센터 ‘열매반’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운동자(여·42) 교사의 지도 아래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국산 조기 영광굴비 둔갑

광주세관, 영광지역 판매업체 3곳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들이 세관과 해양경찰에 의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세관은 15일 중국산 조기 220t을 국산으로 속여팔아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광지역 굴비 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영광에서 각각 11억 원, 9억원, 5억원 등 25억원 어치의 중국산 조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우체국 택배나 할인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양경찰도 이날 중국에서 들여온 냉동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 김모(36)씨를 수산물품질관

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영광군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18억원어치의 중국산 조기 460t을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전회 및 인터넷주문 방식으로 1천여명에게 판매한 혐의이다.

김씨는 10kg들이 중국산 조기를 박스당 2만7천원에 구입한 뒤 4~5개의 영광굴비로 포장·판매해 무려 10배(5만8천원)~40배(23만5천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목포해양경찰도 이날 중국에서 들여온 냉동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 김모(36)씨를 수산물품질관

업자 혐의 수천만원 둔어 검찰, 일간지 기자 구속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15일 건설장비 업자를 혐박해 수천만원을 둔어낸 혐의(공갈)로 모 일간지 기자 이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께 건설장비 업자 박모(50)씨가 장비를 빌려준 공사현장 만을 골라다니며 사진을 찍어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박씨로부터 2천200만원 짜리 덤프트럭을 받은 혐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영광군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18억원어치의 중국산 조기 460t을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전회 및 인터넷주문 방식으로 1천여명에게 판매한 혐의이다.

김씨는 10kg들이 중국산 조기를 박스당 2만7천원에 구입한 뒤 4~5개의 영광굴비로 포장·판매해 무려 10배(5만8천원)~40배(23만5천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목포해양경찰도 이날 중국에서 들여온 냉동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 김모(36)씨를 수산물품질관

오락실 뇌물 ‘윗선’ 어디까지…

경찰 1명 추가 구속

광주지검 수사 확대

검찰이 ‘사행성 오락실 뇌물’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1명을 추가 구속하고 수사 검사를 보강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5일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광주 서부 경찰서 변호(37) 경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유승호 광주지법 영장전달부 장관사는 “범죄자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법자로부터 돈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된 경찰관 4명에게 뇌물을 준 업주 홍모(32)씨 외에도 대규모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또 다른 ‘뇌물 고리’를 찾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을 맡은 특수부에 최근 전담 검사 1명을 파견하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한층 가속도를 밝힐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된 경찰관 4명에게 뇌물을 준 업주 홍모(32)씨 외에도 대규모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또 다른 ‘뇌물 고리’를 찾고 있다.

특히 구속된 경찰관 중 일부가 오락실이 밀집된 광산구 관할 경찰서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의 ‘불통’이 광산서와 상급 기관인 광주경찰청으로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편의점 절도범 잡고보니 점원

○…광주북부경찰은 15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산대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C(20)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서구에 있는 편의점 두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계산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

○…경찰 조사결과 C씨는 다른 점원과 근무를 교대하는 어수선한 틈을 타 범행을 자지른 뒤 자신이 빼돌린 물품은 “손님들에게 반품 요청이 들어왔다”고 업주를 속여왔다는 것.

○…경찰은 C씨가 지난달 초 이같은 범행 사실을 업주에게 들켜 ‘각자’ 까지 쓰고서도 계속 저질러 신고된 피해 금액이 4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법원 “미네르바 구속 적법”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를 구속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수·서석부장판사)는 15일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이 청구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석방 등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박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서부

서부구에 근무하면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업주 A씨

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봄으로써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락실 뇌물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은 최근 같은 혐의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제품 설명회와 강연회 등의 명목으로 고급 음식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식사를 접대하거나 회식비를 지원했으나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례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글락소스 미스클라인(GSK)과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제약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국내 2개 제약사에 공동으로 일관된 고가 제품을 출시한 혐의.

영향력 있는 의사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고문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사 약품을 많이 처방하거나 처방을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의사들의 국내외 학회 참석비, 세미나 비용 등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7개 제약사 2천억 리베이트

공정위 적발

국내 7개 제약사가 병원에 의약 품을 공급하기 위해 약 2천억 원 규모의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글락소스 미스클라인(GSK)과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제약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2개 제약사에 공동으로 2천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총 204억8천200만 원의 과징금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제품 설명회와 강연회 등의 명목으로 고급 음식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식사를 접대하거나 회식비를 지원했으나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례도 있었다.

영향력 있는 의사 고문이나 자문

위원으로 선정해 고문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사 약품을 많이 처방하거나 처방을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의사들의 국내외 학회 참석비, 세미나 비용 등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7개 제약사 2천억 리베이트

공정위 적발

국내 7개 제약사가 병원에 의약 품을 공급하기 위해 약 2천억 원 규모의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함께 총 204억8천200만 원의 과징금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글락소스 미스클라인(GSK)과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제약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2개 제약사에 공동으로 2천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총 204억8천200만 원의 과징금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제품 설명회와 강연회 등의 명목으로 고급 음식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식사를 접대하거나 회식비를 지원했으나 신용카드